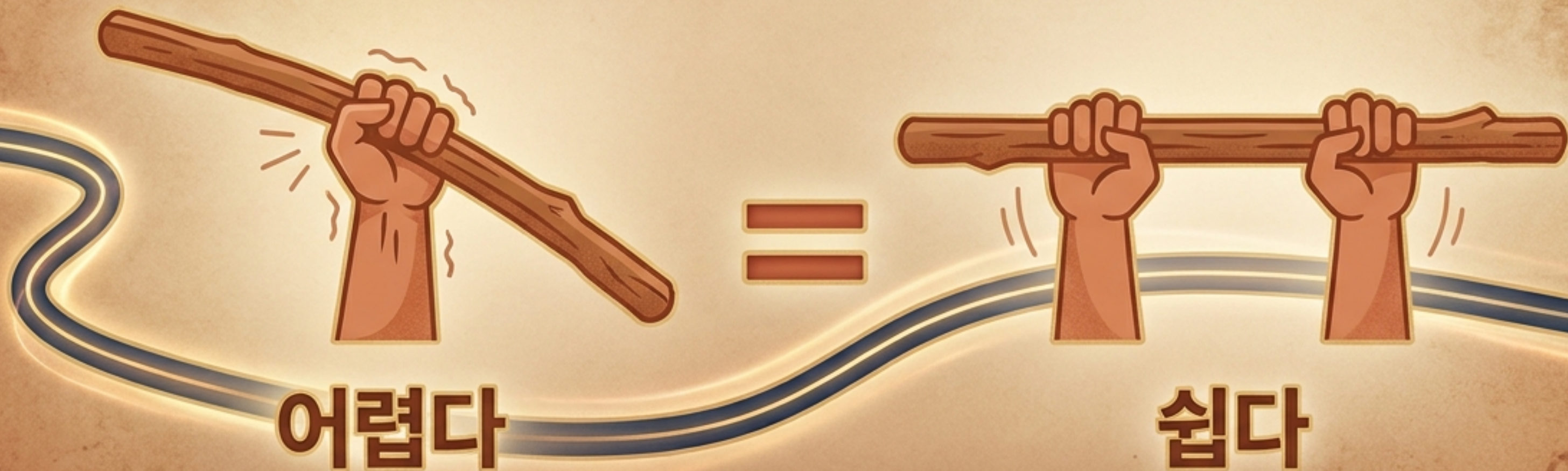


The background is a dark, atmospheric illustration of a battlefield. In the center, a brilliant, swirling trail of light, transitioning from yellow to blue, curves across the scene. The ground is littered with the remnants of war: several swords are stuck upright in the earth, a broken wooden shield lies on the right, and other fragments of armor and weapons are scattered throughout. The overall mood is one of somber reflection and divine presence amidst the aftermath of conflict.

함께 걷는 길, 앞서가시는 하나님

사사기 4장 14절 -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혼자 할 때는 버거운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내가 제일 힘이 세다고 혼자 고집을 피우면 어렵지만, 규칙을 지키며 함께 들면
무거운 막대기도 너무나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함께 순종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비극적인 역사는 쳇바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왕 야빈의 억압을 받으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900대의 철 병거 앞에서는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압도적인 무력.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철로 만든 전차가 900대나
몰려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드보라의 진정한 능력은 무력이 아닌 ‘듣는 귀’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드보라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두려움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갈 때 엄마에게 문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처럼, 바락도 두려웠습니다.
무섭다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바락은 도망치는 대신, 믿음의 동역자에게 ‘함께’를 요청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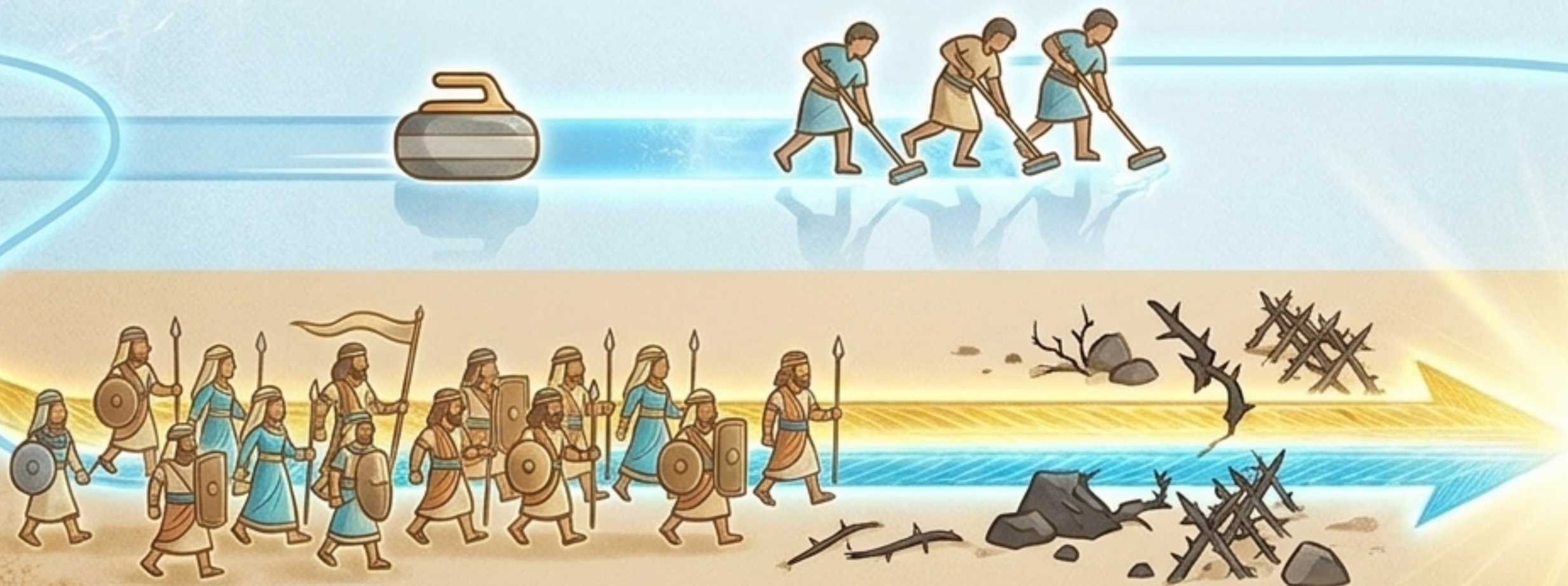
당신이 함께 가면
가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바락은 완벽하게 용감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감당하기 두려울 때,
드보라에게 도움을 구했고 드보라 역시 기꺼이 그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컬링의 스유퍼처럼 우리보다 앞서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지 않으시느냐!"
컬링에서 스톤을 굴리는 사람보다 앞서 길을 닦는 사람이 중요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며 승리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큰 비가 인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철 병거 900대		
	마른 땅	 무적의 전차
	쏟아지는 큰 비와 진흙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

사사기 5장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시자
단단한 땅에서만 위력적이던 철 병거는 진흙탕에 빠져 고철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전투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라는 가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필터를 거쳐야 합니다



무조건 친구와 함께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위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함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함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걷는 세 가지 발걸음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듣기

내 기분이나 생각보다
성경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함께하기

두려워 혼자 하기 힘들 때
믿음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순종합니다.



믿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앞서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번 주,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함께할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은 우리 혼자 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해 보세요.**